선후배 불심으로 다져온 52년…“대학 전법 구심점 역할”

RE:START 대학생 전법

3. 잘 되는 불교학생회–한양대 불교학생회



매주 수요일 정기법회에는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참여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법회 후 기념 촬영 모습.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에 동참한 한불회.



선후배가 함께한 통도사 · 묘관음사 템플스테이.



한불회 동문 · 재학생들이 2023년 12월 23일 양재 엘타워에서 송년법회를 열고 화합을 도모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현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KBUF, 대불련)에는 18개 지부, 129개 지회(가등록 지회 제외)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각 대학 지도법사, 지도교수, 학생들의 원력으로 불법 홍포에 매진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과 회원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교학생회 활성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불황에도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듯, 대학생 전법·포교가 위기라지만 그 가운데도 잘되는 불교학생회가 있기 마련이다. 선후배 간 관계가 돈독하고, 활발한 전법 활동이 이뤄지는 곳, 바로 ‘한양대 불교학생회’다.

한양대 불교학생회(이하 한불회)는 70~71학번 법우들이 중심이 돼 1972년 공식 창립했다. 1963년과 1968년에도 한불회가 만들어졌으나,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이 중단됐다.

두 차례 태동기를 거쳐 72년 한불회가 재창립됐다. 한불회 1기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의 회고에 따르면 대불련 서울지부에서 각각 활동하던 한양대 학생들이 교내 불교학생회 설립을 위해 의기투합했고, ‘선지식 모임’으로 이름을 정해 활동에 나섰다. 70학번 전보삼(화학공학) 관장이 초대 회장을, 71학번 박혜숙(교육학과) 씨가 부회장을 맡아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을 정비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신입회원 모집에도 박차를 가했다. 교양학부 건물 앞에 책상을 가져다 두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건넸다. 각고의 노력 끝에 한 달 만에 97명의 회원이 가입하면서 한불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학생들은 매일 8시에 등교해 아침 예불에 동참했고, 수업 중간 빈 시간마다 동아리방에 모여 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매주 금요일이면 지도법사, 지도교수, 저명인사 등을 초빙해 정기법회를 열었고, 방학이나 주말에는 전국 사찰을 방문해 신행 활동을 체험했다. 자기 생각이나 느낌, 시대 상황에 대한 글에 다른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법흔록’은 1974년부터 지금까지 동아리방에 소장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또 다양한 자료집과 소식지를 발간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성을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기도 했다.

한불회의 진가는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에서 더 빛났다. 회원 중 공대생이 많은 한불회는 1973년 탑등, 석등을 과학적으로 실측·설계해 제등행렬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976년 선보인 불상모양 대형 장엄등은 한불회의 상징이 됐다. 학생들은 서울역 뒤 동자동에서 대나무를 구해 시내버스로 옮겨왔고, 각종 공사현장을 돌며 각목을 얻어와 뼈대를 구축했다. 그 위에 한지를 바르고 니스와 금분을 섞어 칠했다. 스티로폼으로 육계와 나발을 만들었고, 자동차 배터리를 전원으로 3초간 켜지고 1초간 꺼지는 점등 장치를 부착해 백호에 효과를 더했다. 학생들 여럿이 어깨에 대형 장엄등을 둘러메고 행진했는데 주변에선 박수와 환호를 터져 나왔고, 각종 일간지에 사진이 실릴 만큼 주목 받았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운 스님과도 인연이 깊다. ‘한불회는 만해다’라는 수식이 따라다닐 정도다. 한불회 초창

두 차례 태동기 거쳐 1972년 창립

과학적 설계로 제등행렬 대상 수상

든든한 선배들이 재정 지원 뒷받침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해 고민 해결

기부터 시작된 만해 스님 관련 연구와 이해를 위한 노력은 연구발표회, 묘소 참배, 강연, 시화전 등의 활동을 통해 50여 년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한불회가 지금껏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동문 선배들이 있었다. 1974년, 한불회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동문회 창립이 자연스럽게 논의됐다. 이승남, 전보삼, 유승수, 주익현, 이정리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지식 동문회’ 결성을 발의했고, 이승남 법우가 동문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자리에선 자격, 회원, 활동, 회비 등 주요 사항을 의결했고, 재학생 및 동문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의 활동은 재학생 지원에 초점을 뒀다. 처음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이었는데, 재학생들과 대화로 가장 필요한 것이 학업을 이어갈 재정적 지원임을 알게 됐고, 이후엔 학생 2명을 선정해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8년엔 동아리방 PC 세트를, 2009년엔 재학생에 170만원의 보조금을, 2010년엔 150만원의 운영비와 동아리방 전기장판 시설비를 후원했다.

2023년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 재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반에는 학생들이 어색함과 어려움에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선배들은 그런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친목 도모의 기회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아이스브레이킹을 시도했다. 점차 학생들은 진로·진학 등에 대한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놨고, 선배들은 그에 맞는 실질적인 답변을 해줬다. 특히 졸업한 지 3~5년 된 선배들의 최신 정보로 맞춤형 방안을 제시했고, 한 학기에 1~2번은 꼭 대면으로 소통했다.

남중우 선지식 동문회장은 “인생 선배로서, 한 분야 전문가로서 학생들의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 한불회 뒤에는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는 동문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며 “선배들의 노력만큼 한불회 학생들도 평소에 불교 공부 열심히 하고,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불자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선배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재학생들의 노력으로 현재 한불회에는 100명의 학생이 이름을 올려 활동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정기법회에는 20명 이상의 학생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도법사 스님과 명상, 차담 등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방학 때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분교문화를 익히고 지도법사 스님이 준비한 스트레스 해소법, 다이어트법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다.

문찬호 한불회장(24, 원자력공학과)은 “법우들이 지금처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정을 쌓아가고, 건강하게 대학 생활과 신행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대학생 불교학생회가 대학생 전법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만큼 신입회원 모집과 다양한 불교활동으로 한불회 활성화를 이끌고, 한국불교 미래의 초석을 닦아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봉 스님과 함께 한불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수인 스님도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대학생 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학생 전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최적기”라며 “불교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콘텐츠를 개발하고, 불교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사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불교학생회 운영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승려, 법사 입종안내



총무원장
혜일 스님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는 불법홍포, 민족평화통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종을 창종하신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크신 원력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본 종단에서는 승려 및 법사님들의 입종을 모집합니다. 불교중흥의 원력을 갖고계신 승려, 법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승려입문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8(2024)년 새해아침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재단이사회
명예이사장 경원
이 사 장 일명
부이사장 경담
이 사 혜천
법도화, 자비행

종정 / 총무원
총무원장 혜일

원로회의
원로의원 혜천 대륜
현암 법성
법선 경원
승원

중앙종회
종회의장 도정
종회부의장
종회사무처장 혜광
종회의원 재단이사회
고봉 석경 무착
정암 서현 보은
동철 성운 혜성
백운심 여래자
교구종무원장

종무위원
호계원장 동청
교육원장 지언
포교원장 마덕
문화원장 제법
총무부원장 도허
기획처장 지광
감사원장 법광
고시위원장 원공
선거관리위원장 붕원
호계부원장 지명
문화부원장 해동
포교부원장 덕산
총무부장 지원
교무부장 덕운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교구 보 해
경기남부교구 지 안
경기북부교구 지 흘
경 남 교 구 덕 운
대 구 교 구 무상심
울 산 교 구 현 산
전북·전남교구 지 명
제 주 교 구 제 법
충 북 교 구 지 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 www.ilbung.org